

《간단한 일본어 버전》

학습지원부회 서포터 인터뷰

츠루미라운지에서는 매월 제 1, 제 3 토요일 오전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지원교실 「아오조라」, 매주 월요일 야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실 「나나이로」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포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3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서포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 「외국인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 「숙제교실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을 보고」
- 「외국 학생들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말을 모르는 것을 보고」

유의하고 있는 점은 :

- 「좋은 점을 칭찬해 주고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도록 하는 것」
- 「1 대 1 로 학생을 대하며 얘기를 들어주는 것」
- 「학생의 페이스에 맞춰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포기하지 않기」
- 「공부가 재미있어 다니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재 준비하기」

서포터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때는 :

-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라고 웃으며 얘기할 때」
-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이 숙제를 착실하게 하게 되었을 때」
- 「생각이 변해서 밝고 긍정적이 되었을 때」
- 「가르쳐 준 것을 이해한 후 쉽없이 열심히 노력하게 된」 학생들을 보았을 때라고 합니다.

학습지원교실에서는 친절하게 지도하시는 서포터 분들과 상냥한 창구 스태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류부회 소식

2020년 11월 28일, 지역 탐방 「츠루미 안의 한국/조선을 방문하다」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인 8명, 외국인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JR 츠루미역 츠루미선의 홈에는 195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귀국하는 사람들이 선물한 대형 시계가 있습니다. 츠루미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건강하세요」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츠루미 초급학교 부속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의 언어와 문화를 전하는 열성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젠지(절)에 있는 오오카와 츠네키치의 공적비를 관람했습니다. 오오카와 츠네키치는 칸토대지진이 발생한 후 조선인이 살해당할 뻔 했을 때 3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츠루미 경찰서장입니다.

츠루미와 한국/조선과의 관계를 알고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샤베리카이(수다모임) 여러나라 사람들과 일본어로 얘기해요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물도 있어요!

일시 : 2021년 3월 3일(수요일) 13:30-15:00 참가비 : 무료

신청 : 츠루미국제교류라운지 전화 : 045-511-5311

※ 중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